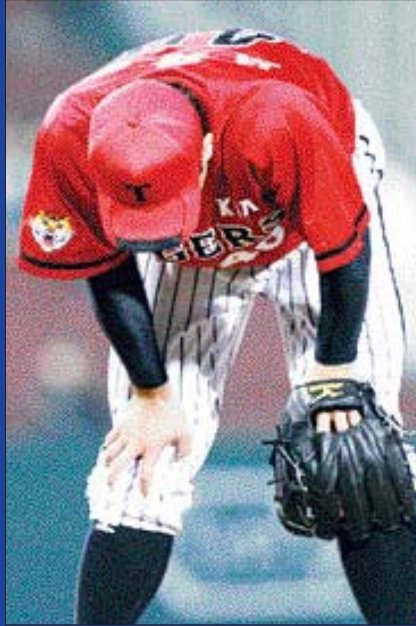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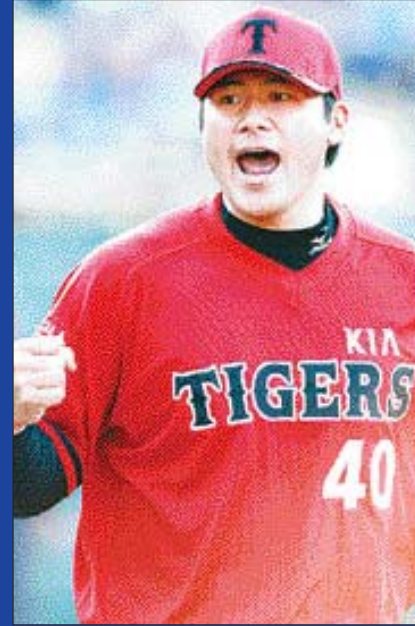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5연패 → 5연승 호랑이 대반전



KIA 한달새 전력 급상승
 팀 자책점 0.60 마운드 안정
 0.265 → 0.297 방망이도 한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중인 이영표(31·토틸넘 핫스퍼·왼쪽)와 설기현(29·풀럼)이 시즌을 마치고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비교체험 극과 극, KIA의 반전’
 뼈격거리던 KIA 타이거즈가 지난 7~11일 5연승으로 기세를 올리며 4강 진입을 위한 본궤도에 올라섰다. 한 달 전 KIA의 모습을 생각하면 팬들에게 연승 행진은 꿈만 같다.
 KIA는 지난달 8일 SK 와이번스를 맞아 홈에서 2연패를 당한 뒤, 시작으로 원정을 가 내리 3패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 7일부터 KIA는 삼성전 홈 2연승 이후 목동 원정 3연전 싸늘이로 5연승을 거두었다. 한 달만의 놀라운 반전이다.
 지난달 5연패 당시 선발 로테이션은 서재응-리마-윤석민-전병두-서재응이었다. 9일 우천 순연으로 로테이션에 여유가 생긴 KIA는 ‘빅 리거’ 서재응을 2번이나 마운드에 올렸지만 연패를 끊지 못했다. 5경기의 팀평균자책점은 4.40. 앞선 8경기에서 2.51을 보인던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5.74까지 치솟았다. 계투진의 팀 평균자책점은 2.20이었다.
 5연승 행진에는 이범석-윤석민-리마-서재응-이대진이 마운드에 올라 0.56의 경이로운 평균자책점을 보여주었다. 계투진은 3개의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평균자책점은 0.69로 떨어뜨렸다. 고질적인 4사구도 30개에서 10개로 특별히 줄었다.

	5연패 (4월 8일~13일)	5연승 (5월 7일~11일)
타율	0.265	0.297
득점	12	28
실점	25	4
출런	1	3
평균자책점	4.40	0.60
4사구	30	10

이대진이 지난달 말부터 로테이션을 꼬박꼬박 소화해 내면서 선발진의 부담이 줄었고, SK로 떠난 전병두 자리를 확실하게 메운 이범석과 입단 동기 윤석민의 파이어팀이 팀의 활력소가 됐다.
 불물 터지듯 살아난 공격력도 마운드에 힘을 보탤었다. 5연패 당시 무기력한 방망이는 12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홈런도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5연승동안 KIA의 타율은 0.297. 상대팀에 4점만 허용한 ‘잔물투구’에 호응하듯 잡자던 타선은 28점을 뽐내며 풍성한 경기를 펼쳤다. 홈런은 3개가 터졌다. 이재주, 차일목의 마수걸이 홈런에 이어 이현권의 3점포가 가뭇물이다.

KIA는 시즌 초반 선발들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 불발과 뒷심부족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8번의 역전패를 당했다. 투·타의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선발진의 부담이 가중됐고, 실상가상 포수 김상훈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마운드가 급격히 붕괴됐다. 변화무쌍한 라인업에 작전은 백발백중 실패로 돌아가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뒤늦게 눈을 뜬 타격과 포수 차일목의 급성장도 출구던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KIA의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다. 투·타의 균형이 만든 KIA의 번신으로 중위권 판도싸움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허리 부상 2군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29)이 허리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
 KIA는 타격 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 최희섭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외야수 김주형이 최희섭 대신 엔트리에 포함됐으며 최희섭은 2군에서 열흘 가량 휴식을 취한 뒤 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영표 “변화 필요한 시기” 이적 가능성 시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중인 이영표(31·토틸넘 핫스퍼·왼쪽)와 설기현(29·풀럼)이 시즌을 마치고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설기현과 함께 귀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영표(31·토틸넘)가 소속 팀에서 장기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함에 따라 팀을 옮길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7-2008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끝나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영표는 “저를 원하는 팀이 많다는 건 기본이 좋은 일”이라며 “지금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토틸넘 왼쪽 윙백으로 활약하던 이영표는 자신을 영입한 마틴 감독이 물러나고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올 시즌 중반 이후에는 주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반면 프리미어리그 2년 차인 설기현(29·풀럼)은 소속 팀에 그대로 잔류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나타냈다.
 이영표와 이날 동반 입국한 설기현은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즌이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무호 ‘옥석고르기’ 고심

월드컵 예선 앞두고 염기훈·곽태휘 부상 대타 찾기

‘부상에 발목을 잡힌 염기훈과 곽태휘가 빠지는 공백을 누가 메울까’
 오는 31일 요르단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을 시작으로 23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앞둔 축구 대표팀에 누가 뺄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은 이번 주중 예비 엔트리 34~36명을 발표한 뒤 17, 18일 K-리그 주말 경기를 지켜보고 소집 명단 25명을 추천하는 계획.
 31일 요르단과 홈경기에 이어 다음달 7일 요르단 원정, 14일 튀르키예 스타 원정, 22일 북한과 홈경기까지 지옥의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만큼 허 감독으로서 옥석 고르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일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정규리그 2연패에 앞장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날 귀국한 이영표(토틸넘 핫스퍼), 설기현(풀럼), 1부 리그 승격으로 내년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김두현(웨스트브롬), 오범석(러시아 사마라 FC), 김남일(일본 빗셀 고베) 등 해외파는 우선 합류 후보들이다.
 그러나 허정무 감독이 지난 달 네덜란드로 직접 건너가 몸 상태를 점검했던 공격수 이천수(페노르트)는 23일여의 빠른 일정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파 중에선 최근 K-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허 감독의 낙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최근 화끈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특급 새내기 조동건(성남)과 수원의 ‘골잡이 듀오’ 서동현, 신영록 등이 허 감독의 눈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량이 검증된 조재진(전북)과 이근호(포항), 박주영(서울) 등도 허정무호 승선이 점쳐진다.

국내 첫 여성 프로 드라이버 강윤수씨 18일 출전

“F1 무대 서보는 꿈”

여성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로 드라이버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강윤수(23·CJ·사진)가 18일 드디어 팬들 앞에 나선다.
 1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2008 CJ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2전이 그 무대로 강윤수는 슈퍼6000 클래스 스톡카(stock car) 경주를 통해 다른 남성 드라이버 7명과 실력을 겨룬다.
 슈퍼6000 클래스는 국내 자동차 경주에서 처음 열리는 종목으로 6천cc 배기량과 500마력의 엔진, 최고시속 300km에 달하는 차들이 빠르기를 겨루는 이 대회 메인 이벤트다. 레이스에는 강윤수와 인기 탠트 트루시원(36·넥센알스타즈) 등 8명이 스톡카를 탈게 된다.
 서울 대영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경주



용 자동차에 관심을 보인 강윤수는 레이싱팀을 운영하며 직접 선수로도 활약한 아버지 강현택(47) 씨의 영향으로 드라이버의 길을 걷게 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경기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자동차들이 일제히 어우러져 가는 모습이 멋있어서 드라이버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강윤수는 고2 때 처음 출전한 카트 대회 신인전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강윤수는 “목표는 크게 잡으려고 했지만 때문에 F1 무대에 서보는 것이 꿈이다. 올 시즌에도 8명 가운데 우승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꼭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배구리그 뛰는 외국인 2010년부터 3명으로

국제배구연맹 새 규정

각국 배구리그에서 뛸 수 있는 외국인선수 숫자가 2010년부터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로이터통신은 13일 국제배구연맹(FIVB)이 스위스 로잔에서 임시 집행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출전 제한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팀은 외국인선수를 동시에 3명까지 코트에 내보낼 수 있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각국 배구협회의 별도 동의가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2010-2011 시즌부터 전면 적용된다.
 루벤 아코스타 FIVB 회장은 “몇몇 부자팀이 톱 플레이어를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FIVB의 이번 시도는 제프 블라테르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축구 경기 용병을 5명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6+5’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제 스포츠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무릎 수술 받은 우즈 재활훈련...복귀 임박

지난달 16일(이하 한국시간) 무릎 수술을 받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골프채를 잡고 연습을 시작하면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마스터스를 마친 직후 수술을 받은 뒤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4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출전하지 않았던 우즈는 13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재활 훈련을 잘 해왔고 지금은 칩샷과 퍼트를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우즈는 “자전거만 타는데 실증이 났다. 지금은 칩샷과 퍼트만을 연습하고 있지만 조만간 정상적인 연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재활이 진행된다면 우즈의 복귀전은 5월29일 개막하는 메모리얼 토너먼트가 될 전망이다.



“태권왕은 바로 나”

13일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시작된 ‘5·18추모기념 전국 태권도대회’ 중등부 라이트급 경기. 이진관(부천 성곡중·오른쪽)이 박성현(서울 당곡중)에게 앞치기 공격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